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브렉시트 시행 및 향후 전망

태양전지의 미래주자 페로브스카이트

북한포커스

“평양 암호화폐 국제 콘퍼런스” 개최 가능성 점검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브렉시트 시행 및 향후 전망	1
태양전지의 미래주자 페로브스카이트	5

북한 포커스

“평양 암호화폐 국제 콘퍼런스” 개최 가능성 점검	8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1
--------------------	----

브렉시트 시행 및 향후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 규 연 (rayna@kdb.co.kr)

- ◆ '20.1.31일 브렉시트 공식화로 연말까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나 무역협상 등에서 난항이 예상
- ◆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영-EU의 미래관계 협상 여부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31일 23시(현지시간) 브렉시트 시행으로, 영국과 EU는 전환기간(~'20.12.31일) 동안 무역·안보·외교·교통 등 미래관계 협상에 돌입

- '20.1.29일 유럽의회에서 영국의 'EU탈퇴협정' 법안을 공식 비준함으로써 '16.6월 국민투표 3년 7개월 만인 '20.1.31일 23시(한국시간 '20.2.1일 8시) 브렉시트 공식화
 - 이로써 영국은 EU집행부와 산하기구에서 모두 탈퇴*하게 되며, 유럽의회 의원(751명) 중 영국측 의원(73명)은 의원직 수행이 정지
 - * EU의 3대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에서 모두 배제되며, 10여개의 산하기구에서도 탈퇴하여 EU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상실
 - 다만, 경제적으로는 완충장치로 '20.12.31일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하여 동기간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 자유로운 주민이동 유지 등 큰 변화 없음
- 영국과 EU가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따라 양측은 전환기간 동안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규정 마련을 위해 미래관계 협상에 돌입
 - 英 존슨 총리는 연말까지 협상을 마치고 예정대로 '21.1월부터 완전한 EU 탈퇴를 고수하고 있으나, EU는 현실적으로 11개월안에 세부규정 마련이 어려워 전환기간 연장(최대 2년)을 주장
 - 만약, 전환기간 연장시한인 '20.6.30일까지 협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연내 협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다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혼란 발생 가능

□ 영국과 EU는 무역규제와 기준 설정 등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미래관계 협상에 난항이 예상

- 영국정부는 무관세·무쿼터가 적용되는 FTA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EU-캐나다 간의 FTA 모델*을 제시
 - * 양자간 상품무역은 거의 무관세가 적용되나 비관세장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서비스 교역은 제한적, 인력의 자유이동은 불가능한 형태

- 다만, EU는 국가보조금·고용기준·조세 문제 등에서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EU규제를 적용하여 왔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EU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EU규제를 따를 것을 요구
- 英 존슨 총리는 EU와 FTA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올해말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 확대
 - 무역합의가 불발될 경우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적용받아 WTO의 최혜국대우(MFN)세율을 적용*
 - * 예를 들어 독일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영국에 수출할 때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지만 '21.1월부터는 10%의 관세 적용
 - 그 밖의 영국-EU 미래관계 설정 미비로 인한 관세·통관 검사 부활, 자금이동 및 여행(여권, 보험, 운전면허 등) 제한 등으로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혼란이 예상
 - IMF World Economic Outlook('19.4월)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18~'21년까지 영국 GDP 규모가 3.5%, EU GDP는 0.5% 감소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이후 국내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영-EU의 미래관계 협상 여부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국은 對EU 및 對영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한-영 FTA가 기체결된 상태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한국의 對EU 수출비중은 '19년 9.7%(영국 1.0%) 수준으로 EU 및 영국 수요 감소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다만, 미국은 對EU 수출비중이 큰 편(19.2%)으로 이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가능성이 상존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럽내 극우 포퓰리즘 강화 등 여타 대외불안 요인과 결합하여 세계경제 하강압력 확대 가능
 - 또한 영-EU 합의 불발시 통관 및 인증 기준 등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대비 필요
-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對영국 익스포져 규모는 '18.9월말 기준 전체 대외 익스포져의 3.3% 수준(79.5억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런던의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도 단기간내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런던에는 5,000여개의 금융회사에 110만여명의 금융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 관련 규정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등 강력한 금융 인프라 구비로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장점 보유
 - 다만, 영국이 EU 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EU는 영국자본의 EU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영-EU 협상기간 동안 불확실성 지속 가능

< 참고 ① : 영-EU탈퇴협정안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1.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관세 체계에 귀속시키거나, EU 규제(규격·성분·안전기준)를 준수하고, 세관기능을 아일랜드섬과 영국 본토 사이에 도입하여 이중관세 체계 유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에 대해 우선 영국정부가 EU를 대신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이 아일랜드로 운반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소비된 경우 이 관세는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소비세, 상품, 위생·검역, 농업, 정부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전환기 종료후에도 4년간 EU법령이 북아일랜드에 적용, 이후 북아일랜드 의회가 해당 EU법령의 계속 적용 여부 결정
2. 전환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기간은 기존 합의대로 '20.12월에 종료되나 '20.6.30일까지 연장 합의에 이를 경우 전환기간 연장 가능 다만, 英 존슨 총리는 전환기간 연장 금지를 영국 국내법으로 법제화함에 따라 전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영국의 추가 입법 필요
3. 미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과 경제협력, 외교, 안보 등에 야심차고, 광범위하며 깊이가 있고, 유연한 파트너십 표방 영국-EU의 미래관계는 포괄적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며 무역 이외 다른 부문에서도 협력할 것을 선언
4. EU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유럽재판소가 최종결정권자 역할을 수행 합의안과 관련된 해석에 논쟁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개설하여 논의하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위에 부치도록 합의
5.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가 영국의 금융 관련 규제가 EU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영국 금융기업의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 중재 절차와 최소 30일 이상의 통지기간 제시 없이는 시장접근 거부 불가
6. 어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어로수역 관련 세부내용은 '20.7월까지 합의하기로 이연
7. 지브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브롤터 관련 논의는 스페인과 영국 양자간 협상을 통해야 하며, 영국-EU간 합의가 스페인의 동의없이 지브롤터에 적용될 수 없음을 EU와 영국이 회담 직전 스페인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스페인-영국간의 영토분쟁 대상 지역으로 1713년 이후 영국령이 된 이후 스페인이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英 존슨 총리는 메이 前총리 때 완성되었던 기존 탈퇴협정안에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쟁점이 되었던 일부 문제조항을 수정

< 참고 ② : 브렉시트 진행 경과 >

구분	내용
'16.6.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자 증가로 일자리 감소, 테러 우려 및 독일 주도 EU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영국내 EU탈퇴 여론 고조 국민투표 결과 EU탈퇴를 원하는 국민(52%)이 잔류를 원하는 국민(48%)보다 다수를 차지 EU잔류파였던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16.7월 사임하고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총리에 취임
'17.3.29일 영국의 EU탈퇴의사 공식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본조약 제50조에 따라 탈퇴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3.29일까지 EU탈퇴를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 기한 연장은 EU국가들의 동의가 필요 '19.6.26 메이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EU의 '브렉시트 합의안' 서명
'18.11.15일 메이 총리와 EU의 브렉시트 협상 최종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은 EU에 분담금 390억파운드(약 57조원)를 지불하고, EU의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하는 전환기간('20년말까지) 설정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국경 재설치 없이 전환기간 종료까지 현상태 유지 다만, '19.1~3월 영국 하원에서 EU 최종합의안을 세차례 표결하였으나 모두 부결되며 메이 총리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
'19.4.10일 브렉시트 시한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지연되자 '19.4.10일 EU 27개국 정상 회의에서 브렉시트 시한을 기존의 '19.3.29일에서 '19.10.31일로 연기
'19.5월 메이 총리 사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24일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보수당 대표 겸 총리에 취임
'19.10월 존슨 총리 새로운 협상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일랜드 안전장치에 대한 대안으로 북아일랜드에 '이중관세 체제 적용'을 제안하였으나 의회통과에 난항 영국은 결국 브렉시트 시한을 기존의 '19.10.31일에서 '20.1.31일로 재연기 요청을 하였으며, EU에서 이를 수용
'19.12.12일 영국 조기 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완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압승, 의회에서 보수당이 의회 과반 지위 확보로 마침내 브렉시트협정 법안 의회 통과
'20.1월 브렉시트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0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였으며, 1.24일 EU도 브렉시트 협정문 서명 '20.1.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하여 1.31일 23시 기준 브렉시트 발효 및 전환기 시작 '21.12.31일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태양전지의 미래주자 페로브스카이트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 선 화 (sunhwa@kdb.co.kr)

- ◆ 성장 가도의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중 저비용·고효율의 잠재력이 크고, 휴대용 전자기기와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관심 고조
- ◆ 전세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최대효율 경쟁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기술력이 상용제품 개발 가속화와 미래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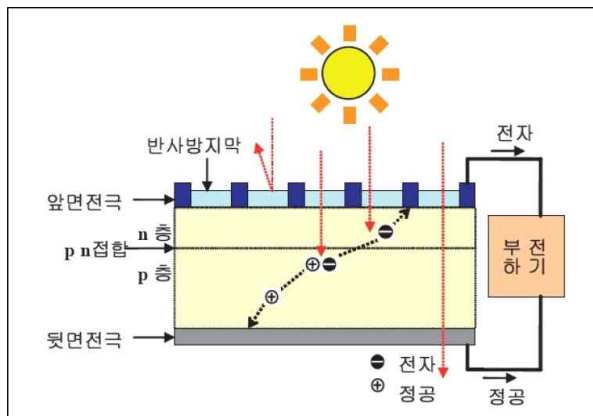
□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성장 지속과 함께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관심 집중

○ 태양전지는 **광전효과***를 이용해 태양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로, 현재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태양전지의 95% 이상이 **실리콘 태양전지****

* 물질 표면에 빛을 비추면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광전효과를 나타내는 소재(광활성 물질)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 및 박막형과 페로브스카이트 등의 차세대 태양전지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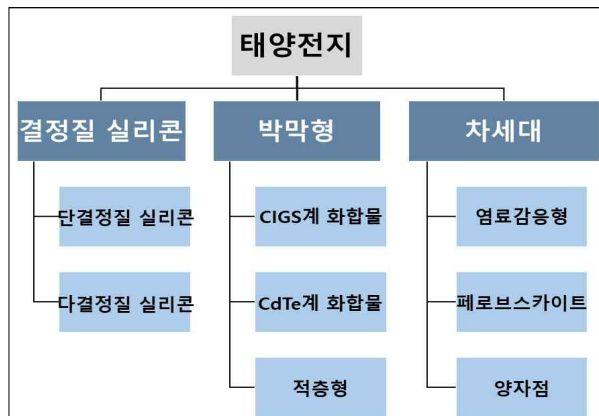
** 태양전지가 빛을 받으면 pn접합면에서 자유전자(-)가 생성되어 n형 실리콘(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가 있었던 정공(+)은 p형 반도체에 이르러 각 반도체 표면에 전극을 형성하여 전자를 외부 회로로 흐르게 하면 전류 발생

실리콘 태양전지의 원리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9.1), "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

태양전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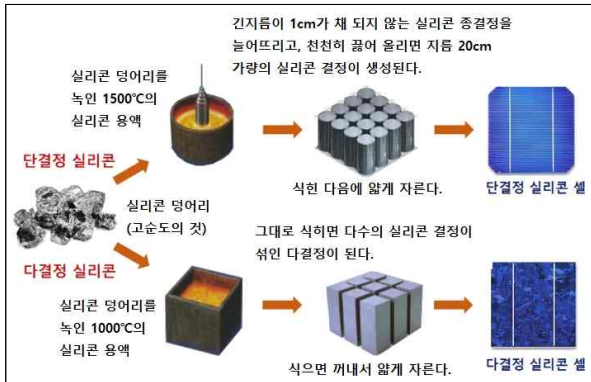


자료 : 성대신문(2014.9) 등

- 실리콘 태양전지는 고효율('19년 기준 최고효율 26.7%)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리콘 정제 과정에서 1500℃가 넘는 온도가 필요하고, 제조 공정이 복잡해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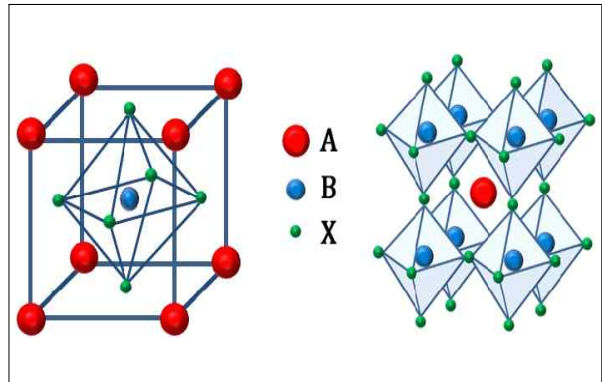
* 실리콘가공에 대한 원가절감 한계문제(중국 대비 높은 인건비 및 전기료)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역행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 :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웅진에너지)

단결정/다결정 폴리실리콘 제조방법



자료 : Newton(2009.9) 등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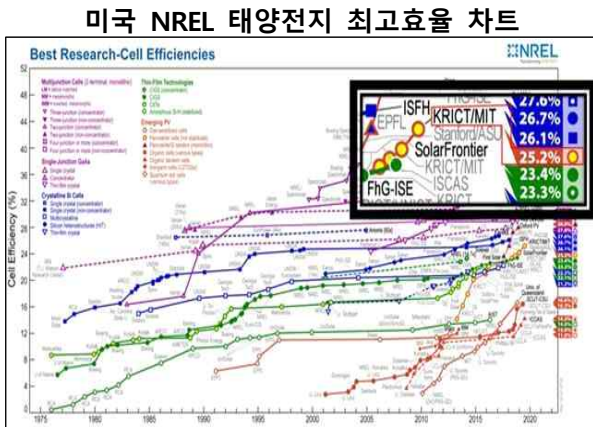
자료 : 신소재경제(2017.9)

-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다양한 태양전지가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저비용·고효율 잠재력과 넓은 응용 분야를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가장 주목
 - * 두 종류의 양이온(A, B)과 한 종류의 음이온(X)이 결합한 3차원 결정구조(ABX₃)를 의미. 1839년 러시아 광물학자 레프 페로브스키(Lev Perovski)가 새롭게 발견한 광물(CaTiO₃)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고, 이후 같은 유형의 구조를 갖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를 광활성 물질로 이용하는(박막형) 태양전지
 - * 두 양이온 모두 금속인 무기 페로브스카이트의 양이온 자리에 유-무기물이 각각 들어가고, 음이온 자리에 기존 산소 대신 할로겐화물이 들어간 페로브스카이트를 의미.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메틸암모늄요오드화납(CH₃NH₃PbI₃) 등이 있음
 - 복잡한 공정과 고가의 장비로 제조되는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화학적으로 쉽게 합성되는 저렴한 유-무기물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고, 높은 **광전 효율*** 특성으로 실리콘 태양전지 대체 전지로 주목
 - * 빛, 즉 광자(Photon)의 움직임을 전기로 전환할 때의 효율
 -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가볍고 유연하며, 조성에 따라 반투명이나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하여 스마트 워치·글라스 등 휴대용 전자기기와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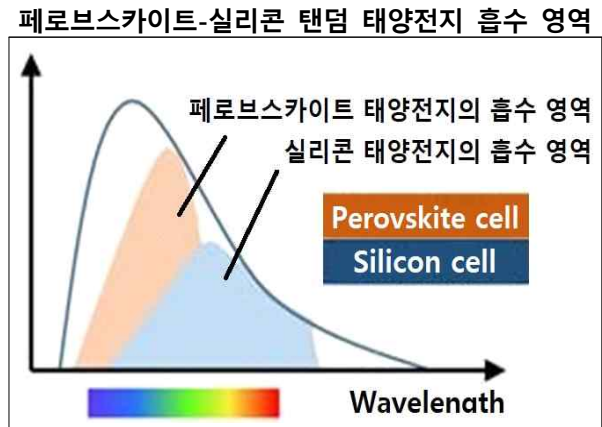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대효율 경쟁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기술력이 상용 제품 개발 가속화와 미래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 필요

- '09년 일본에서 최초로 태양전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짧은 기간에 비해 높은 효율 향상을 이루고 있으며, 그 선두에 국내 연구진들이 자리매김
 - 일본에서 최초 개발된 액상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3.81% 효율에 불과했고, 광활성 물질이 전해질에 용해되어 수명이 짧은 문제 존재
 - '12년 국내 성균관대학교에서 고체상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해 9.7%의 효율을

- 달성했고, '13년에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다공성 구조로 12.7%의 효율 기록
- 최대효율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스위스 로잔공대(스), 중국과학원(중), **한국화학연·미국MIT연구팀(한·미)** 등으로, '14년 이후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최고효율 차트 기록경신 치열
 - * '14년 (스) 14.1% → '16년 (스) 21.6% → **'16년 (한) 22.1%** → **'17.10월 (한) 22.7%** → '18.7월 (중) 23.7% → '19.4월 (한) 24.2% → **'19.8월 (한·미) 25.2%**
 - 현재 25.2%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최고효율은 실리콘 최고효율과의 격차를 1%대(1.5%p)로 줄인 것으로, 효율 측면에서의 상업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구성 및 대면적화 등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동기 부여



자료 : 한국화학연구원 보도자료(2019.8), "한국화학연구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마의 효율 25% 돌파"



자료 : 전력연구원(2019.5)

-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하는 형태의 **탠덤 태양전지**를 시작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
 - 탠덤 태양전지는 적색 파장대 빛(적외선)을 흡수하는 실리콘과 청색 파장대 빛(자외선~가시광선)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해 빛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효율 증대 가능
 -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실리콘 태양전지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독립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전까지 시장 대체 예상
 - 영국 옥스퍼드 PV는 '18.12월 탠덤 태양전지로 28%의 효율을 달성하고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시제품 생산
 - '19.8월 국내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신성E&G는 기존 적층형 탠덤 태양전지보다 제작이 쉬운 '부착형 탠덤 태양전지'를 개발해 21.2%의 효율 달성
 - 한편, 글로벌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이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하여 본격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관심과 기대 고조

“평양 암호화폐 국제 콘퍼런스” 개최 가능성 점검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김민관 (matsuhara@kdb.co.kr)

- ◆ 북한은 '20년 2월중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준비중
 - '19.4월 개최한 1차 콘퍼런스 후속 행사 성격으로, 외국의 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북한 IT·과학기술계 인사와 교류 예정
 - 외국 참가자 모집을 위해 인터넷 허용·방문기록 비표시 등 편의 및 부대관광 제공
-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한 미국·일본 등의 기술통제 우회를 위해, 금번 콘퍼런스를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회로 이용
- ◆ 암호화폐 기술 악용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경고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콘퍼런스 개최 가능 여부 불투명
 - 미국의 1차 콘퍼런스 참석자 기소, UN 안보리 경고 및 북한행 항공편 중단 등으로 외국 참석자 격감 예상

□ 북한은 2월중 “평양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콘퍼런스 2020” 개최를 준비중

-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8일간(2.22 ~ 29일)의 일정으로 해외 전문가 기술강연 및 비즈니스 행사 개최 예정
 - 외무성 산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스페인 민간단체 조선친선협회* 공동 주최
 - '19년 개최된 제1차 국제 콘퍼런스('19.4.18~25)의 후속 행사 성격
 - * Korea Friendship Association,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 회장이 '00.8월 설립한 친북단체, 해외에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매체 번역·소개 및 각종 교류행사 실시
- 외국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를 초청, 북한 IT·과학기술계 인사와의 교류 추진
 - 암호화폐 컨설팅업체 '토큰키(TokenKey, 몰타 소재) 대표 크리스토퍼 엠스 및 시가총액 10위권 암호화폐 고문 등 전문가 참석 예정
 -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 협력을 희망하는 북한 AI(인공지능) 개발·신기술 사업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 계획
- 원활한 외국인 참석자 모집을 위해 각종 편의 및 부대관광 제공
 -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 보장,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 개인 휴대기기 허용 등 통신 관련 제한 완화

- 비자 대신 1회성 방문증 발급, 여권에 북한 입국관리 스탬프 날인 생략 등을 통해 외국 참가자의 불이익 차단 강조
- 콘퍼런스 기간 중 평양·개성·판문점 관광 및 마식령 스키장 숙박 기회 제공

콘퍼런스 주요 일정

일자	일정
2.22 (토)	베이징 출발, 평양 도착
2.23 (일)	평양시내 관광
2.24 (월)	콘퍼런스 참석
2.25 (화)	"
2.26 (수)	개성, 판문점 관광
2.27 (목)	마식령 스키장 관광
2.28 (금)	"
2.29 (토)	평양 출발, 베이징 도착

자료 : 조선친선협회(KFA) 홈페이지

콘퍼런스 홍보 홈페이지



자료 : 조선친선협회(KFA) 홈페이지

□ 이 콘퍼런스는 對북한 기술통제를 우회,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국제적 기술 네트워크 구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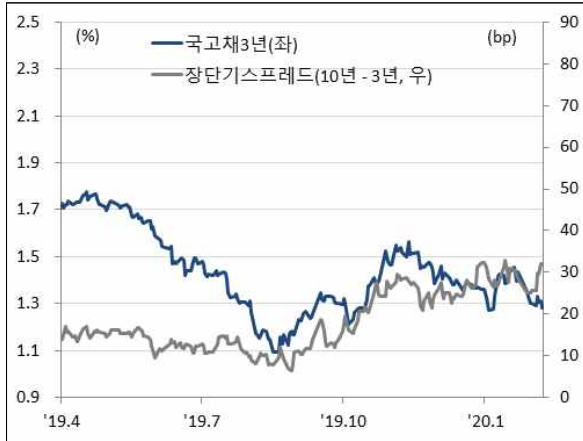
- 북한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를 통한 경제발전 추진전략인 “단번도약” 실현 차원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진행중
 -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강의 실시, 경제 관련 학술지에 암호화폐 논문* 게재
 - * 김강선(2019.3), “가상화폐의 출현과 그 영향”, 경제연구 2019-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미국 언론매체인 VICE는 북한이 가치가 안정적인 금 등의 상품과 연동되는 형태(Stable Coin)로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중이며, 토큰을 만드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도*
 - * VICE(2019.9.19), “North Korea is building it's own Bitcoin”
- 미국·일본 등의 대북 기술유출 차단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기술협력 제한이 없는 EU권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로 활용
 - * 조선친선협회 베노스 대표는 스페인 IT 개발자 출신으로 북한에 블록체인 기술자를 소개하였으며, '19년 제1차 콘퍼런스에 참석한 파비오 피에트로산티는 이탈리아 프로그래머로 익명 브라우저를 개발한 암호화 기술 전문가

□ 자금세탁·금융제재 회피 등 암호화폐 기술 악용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경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콘퍼런스 개최가 불투명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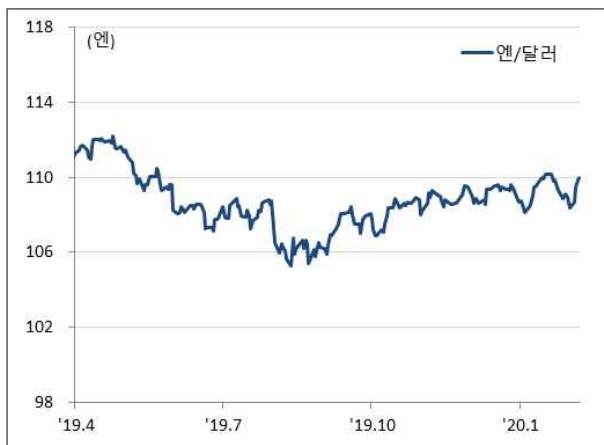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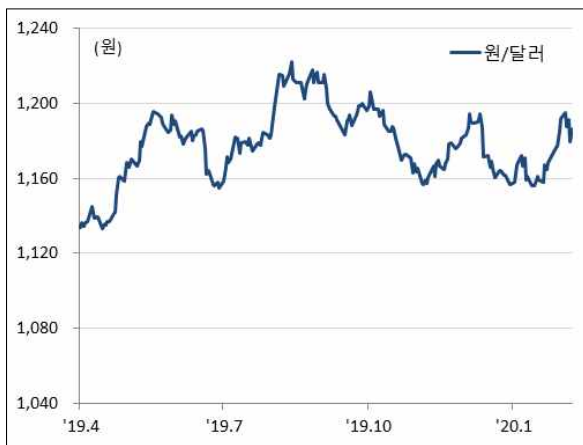
- 국제사회가 금번 콘퍼런스가 불법자금 추적 회피 및 국제금융망 봉쇄 우회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여 참석 희망자 격감 예상
 - 미국은 '19년 1차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국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를 독자적 제재규정(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1월 UN 안보리의 기밀 보고서에 금번 콘퍼런스 참석 관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
- * REUTERS(2020.1.15), "UN sanctions experts warn - stay away from North Korea cryptocurrency conference"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경 폐쇄 및 관광객 유입 중단조치 시행 중으로, 콘퍼런스 개최 전까지 상황 개선 어려울 전망
 - 중국발 평양행 국제열차 및 항공편 중단으로 콘퍼런스 참석자의 입국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곤란
 - 평양내 호텔, 상점, 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이 무기한 중단되어 콘퍼런스 참석자 수용 어려움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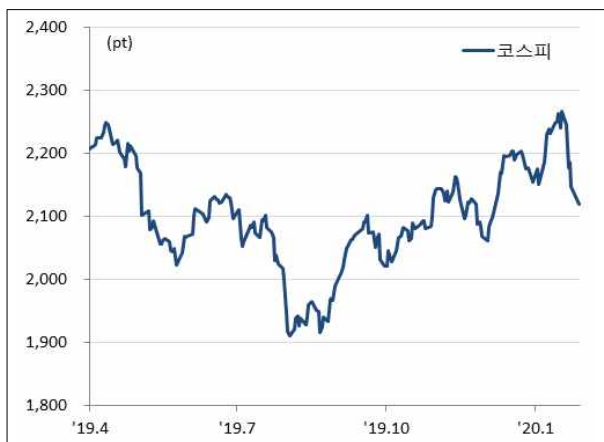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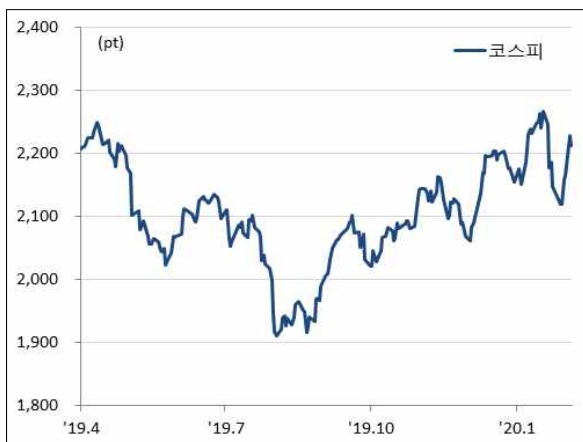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1.28% (1.1bp ↓), 신용스프레드 40bp (1.8bp ↓)



환 율 원/달러 1,186.5원 (8.5원 ↓), 엔/달러 109.99엔 (1.64엔 ↑)



주 가 코스피 2,211.95pt (4.39% ↑), 코스닥지수 672.63pt (3.99%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신용스프레드와 엔/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65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